

귀한 동역자님께,

엄너찌어웃! *អំណរជាតិ* 영원한 기쁨!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캄보디아의 정지웅/은영 선교사 문안드립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의 이곳 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눠드립니다. 이 서신이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의 저희가 만나고 양육하고 이들, 섬기는 교회 사역을 돌아보면, 양적 증가보다는 기존멤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며 핵심멤버화 됨을 확연히 보게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작정하고 올곧게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기도 응답이 더해가고, 그들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은 교회의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전체를 단단히 세워가게 하십니다.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졌고, 연약한 지체들이 강건해져갑니다. 서로가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사소한 일들을 공유하며 형제와 자매와 같이 닮아감이 참 보기 좋습니다.

찌보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며 opening a new chapter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의 전기과 학생으로, 2011년 6월에 처 만남을 시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시작된 후, 저희가 가장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하며 양육의 포커스를 두었던 형제입니다. 셀 사역을 시작하며 첫 소그룹 리더였고, 이후 처음으로 증식셀로 성장했으며, 작년 감뽕짬 단기선교의 팀장으로 전과정을 섬겼던 형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주일성수를 위해 주말 수업을 포기했었고(동역서신 16호), 교회의 첫번째 금식자였고(동역서신 19호), 2014년 과수석으로 졸업후 본교 강사채용에서 좌절되었으나(동역서신 20호), 이후 프놈펜 시내의 한 국제학교의 초등학교 수학선생으로 일하면서 유학준비에 초점을 맞췄고, 지난 7월 한국의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석사과정에 전액장학생으로 최종 합격을 받아, 이제 8월말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정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게하신 것이 저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한국에서의 석사 이후 미국으로 이끄시며, 학위를 마치는 물론, 탁월한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돌아와,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발전과 캄보디아 복음화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찌보완을 처음 만난 날과 최근의 것입니다)

헤일롱의 눈물 tears in Henglong



헤일롱은 국립경영대학 회계학 4학년이면서 작년부터 예술대학 음악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입니다 (캄보디아에는 두 대학을 동시에 다니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난 동역서신에서 나눴던 티어리 자매의 교회 라이드를 해 주면서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헤일롱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하십니다. 부모님이 다치신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드릴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로서는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배 출석 한달 쯤 지나 상담을 하는데, 찬양을 부르면 몸이 떨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두드리시고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다른 형제에게 헤잉롱을 3 주간 일대일로 케어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도록 부탁하고, 정선교사와 매주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2 달정도 말씀이 그 좋은 밭에 뿌려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가고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장사하시는 부모님의 어려운 등록금으로 프놈펜에 유학와서 게으르지 않고 (연애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겼으나, 이제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조금씩 보고 발견해가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헤잉롱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안에 단단히 서가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지난 5 월 28 일로 처음으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완독한 후 찍은 것입니다. 그의 성경에 많은 포스트잇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 도장, 로고, 브로셔 제작 connecting the cores



교회 도장과 로고, 브로셔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소그룹별로 디자인을 만들어 2 개씩 추리고, 다시 전체가 무기명 스티커 투표로 정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술 전공하는 이에게 부탁해 다듬어 완성하였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길을 보이고 가도록 이끄는 것은 영적리더인 저희들의 중요한 몫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자기것으로 삼게하는 과정의 시간이 아닐까도 여깁니다. 로고와 브로셔를 함께 고민하고 만드는 과정 또한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안의 우리의 내용 Identities 를 담고 있어서입니다. 도장과 로고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교회의 물건들을 구분하는 표시로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이 파란색을 Wake Up blue 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비전(엡 5:14)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언어 교육 bridge ministry: language

영혼은 교회로 이어주는 다리 사역 Bridge Ministry 인 영어와 한국어 언어교육은 모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동역서신 이후 한글반은 섬기시던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된 후, 헤잉을 시험적으로 3 개월간 기초반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전자과를 작년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회사에 엔지니어로 취직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회에서 지내니 그 삶이 참 단순합니다. 헤잉이 맡은 한글반 수업을 매주 성실히 준비해 옵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기초가 없는 캄보디아 사람에게 그들의 말로 가르치는 것



또한 효과적입니다. 헤잉이 섬기는 기쁨을 지치지 않고 누리고, 가르치는 역량도 잘 개발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는 작년 가을이후 토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네 길을 걸어도 영어학원들, 혹은 영어로 가르친다고 광고하는 영세 국제학교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서양 NGO 들도 영어 회화를 많이 개설하고, 물문교 선교사들도 무료영어 피켓을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보면 동네 꼬마들이 저희에게 '헤이, 헬로우'하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저희의 토플 수업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일반 영어와 달리 만나는 대상들도 바뀌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유학의 목표를 가진 학업의 열심을 내는 이들입니다.

헤잉이 지난 16 일 주일 예배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어와 영어, 음악 등의 콘텐츠는 캄보디아의 젊은 층에 관심과 필요가 맞으니, 교회 밖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어떠냐 하였습니다. 다리사역의 확장, 이것은 저희 부부가 기도해 오던 것이었기에, 그의 입으로 그 말을 들었을때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시 나누자 했습니다.

제이시즌 J Season

1 년 12 달 중에 그 영문이름에 J 가 들어가는 1 월 January, 6 월 June, 7 월 July 을 묶어 제이시즌이라 칭하고, 연초와 하프이어 (Half-Year)의 두 축으로 교회의 정기 행사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1 월은 신년비전말씀사경회, 6-7 월은 하계 수련회와 단기선교, 그리고 집중 제자훈련 기간으로 삼으며,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 Jesus 께 헌신하자는 취지도 갖습니다.

이에 따라 6 월에 수련회, 주 3 일 두달간의 집중 제자훈련, 그리고 7 월 새로운 단기선교지 개척의 세가지 사역을 두고 지난 3 개월정도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Retreat June 27-28

지난 6 월 27-28 일 (토, 주일) 하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바닷가로 갔었던 첫 수련회 후, 올해부터는 두번을 가자고 했던 약속을 이번 제이시즌에 맞춰 여름 수련회로 지킨 것입니다. 장소는 프놈펜에서 3 시간 정도 떨어진 끼리롬 입니다. 울창한 나무가 많은 곳이고, 그 가운데 계곡물이 흐르는 휴양지입니다. 저희는 그곳의 오두막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물놀이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28 일 오후 계곡 물 속에서 귀한 세명의 지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식을 치렀습니다.



쓰리미트 Sreymich (사진 왼쪽)은 가족으로 부터의 상처가 많은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싱가포르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서 성장했으며, 수줍음을 많이 타나, 신앙이 예쁘게 자라 2 년전 예술학교로 들어와 이후 저희 교회로 오게 된 자매입니다.

못 다엔 ^{Mut Diane}(사진 가운데)은 어려서 양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쓰러이멧과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 역시 대학으로 프놈펜에 왔습니다. 기독교관에서 성장했으나 본인의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해왔기에, 이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모두 앞에서 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또 한 자매, 삐싸이 ^{Pisey}(사진 오른쪽)는 지난 동역서신 20 호에서 나눴던 자매로,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가족이 사원에 공양하러 들어갈 때, 혼자 그 문앞에서 멈추었던 자매입니다. 이후, 월드비전으로 취직하여 일하고 있으며, 이번 수련회에서 신앙고백을 하나님과 모두앞에서 감사함으로 하였습니다.

휴탕물에 썩 들어갔다가 흠뻑 젖어 나오는 모습이 참으로 빛나고 예뻐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생생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프놈펜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러가면서 하늘로 쏜 높은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래 우리가 저 큰 나무들보다 더 크고 존귀한 자들이다'란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뽕츠낭 단기선교 Kangpong Chhnang Mission Trip Aug 1-2

2011 년 가을을 시작으로 매년 감뽕츠낭으로 단기선교를 가면서, 저희 안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의 모든 주로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찾아가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지경은 크기를 소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단기팀을 보낼 수 있는 사역지를 품었습니다. 이후 감뽕츠낭 단기선교가 3 회 4 회로 이어지며, 작년부터는 두번째 단기선교지를 두고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번째 사역지인 감뽕츠낭으로 첫 단기선교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역서신 21 호에서 나눴던 우덤 형제의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와, 그 지역의 시골 어린이 사역처소로 들어 간 것입니다. 7 년정도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 팀이 방문한 적도 별로 없을뿐더러, 현지인 단기팀원들이 찾아와 함께 시골로 들어가 사역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며, 크게 기뻐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이번단기선교는 2 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를 세우고, 그가 팀을 구성해 각각을 또다른 이들에게 위탁해가는 모습, 그리고 모이고 기도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결국 맡은 자를 성장시킴을 보게하셨습니다. 또한 여행경비 외에, 시골 아이들을 쌀을 사기로 하고, 커피쉐이크를 팔고, 지정헌금 창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목적헌금은 다시 교회가 같은 금액으로 매칭하여 2 배로 늘렸습니다. 나는 5kg 의 쌀 값을 헌금하였지만, 선교지로는 10kg 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은 그렇게 기분 좋게 채워졌습니다.



매번 또 다시 깨닫는 것이, 단기선교 현장은 저희가 섬기는 현지인의 진가가 모두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어찌나 그리 잘 하는지, 그리고 쉽게하는지, 선교사가 10 년 20 년이 되어도 할 수 없는 분명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사람' 입니다. 섬기는 이도, 섬김을 받는 이들도 서로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과 노래하고, 그림그리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중 주일학교 미술시간에는 주변의 꽃과 나뭇잎을 꺾어 그것으로 붓을 삼았습니다. 또 색색 물감을 처음 본 아이들은 손에

물히며 장난을 치며 좋아해줍니다. 저희 팀원들 또한 모두 특별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낌 없이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한지,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낌없고 즐겁게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 사이 틈을 내어 캄뵁츠낭이 고향이 이의 가정방문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을 잘 못보셨기에, 제가 캄보디아 말을 한다고 신기해하며 환히 웃으시는 우덤의 할머니(아래 왼쪽), 프놈펜에서 우리 아이 선생님이 집에 오셨다며 손을 덥석 잡으시고, 생수 한 병을 내오시는 솔로의 부모님 (아래 오른쪽),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순수히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의 어머니는 빛바랜 옛 사진들을 보이시며, 지난 6 월 한국의 전남대로 유학 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캄뵁츠낭에서의 첫 단기선교를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도 담아 프놈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월요일 덤으로 주신 감사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다옌은 새 직장에 출근을 하여 직원 이름표를 받았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왔고, 쓰러이멧은 지원했던 디자인회사에서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분로얏은 중국의 한 대학으로부터 석사과정 장학생 선발 1 차 서류심사에 통과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것입니다. 곧 이어 수요일에도 또 다른 형제 모니레약이 그가 네팔을 위한 희망의 주제의 그림을 그리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자신의 것이 입선되었다고 미국의 회사에서 메일을 받았으며, 들 뜬 마음으로 밤에 교회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좋은 소식들이 저희에게도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태국선교 Thai Mission



내년 7 월 2016 J Season 첫 해외 단기선교를 시작합니다. 첫번째 나라는 태국이며 이제부터 시작하여 1 년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경비는 육로로 이동하는 최소비용으로 4 박 5 일 기준 1 인 150 불로 잡았습니다. 팀원들은 은행 적금 통장을 개설해 매달 10 불 혹은 이상 저금해야하고, 태국의 역사, 문화, 언어, 복음 교육의 훈련들을 하나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 멤버 중에 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며 언어에 능숙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전도와 여행을 위한 기본 언어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말에 캄뵁츠낭 단기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 년은 캄보디아 국내 선교와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하는 해외선교의 새로운 해가 될 것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가족 Family

정은영 선교사는 작년 가을부터 계속되는 두통과 여러가지 염증이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아, 치료차 잠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외 여러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비염, 식도염, 위염, 방광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유방암 검사 중, 오른쪽 가슴에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검사 후 모양이 불규칙하고 악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혹으로 진단이 내려져 제거하였습니다. 특별히 정은영 선교사는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 하는 체질입니다. 그동안 캄보디아의 더운 날씨에 몸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후에도 여러 약들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주언이도 3 년만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어린이 장난감을 받고, 넓은 공원에서 오토바이없이 마음껏 자전거를 타고, 시원하게 뚫린 길거리를 걸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별것 아닌 일상에 참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캄보디아는 가난하고 지저분한 나라가 아니냐고 누가 물으면, "아니에요. 캄보디아에도 좋은 것 많아요!"하고 손사래치며 캄보디아 변호를 하니, 그안에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어 감사합니다. 온유와 주언이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캄보디아, 더 많은 열방의 나라들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길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1. 찌보완의 한국에서의 학업과 신앙생활을 이끄시며, 그가 섬긴 자리들이 아름답게 채워지도록
2. 제자교회를 캄보디아 종교성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모든 과정을 순탄히 마치도록
3. 선교사 부부의 영혼사랑과 영성을 더하시며, 정은영 선교사의 건강과 면역력을 회복시켜주시길
4. 온유, 주언이가 지혜롭고 총명히 자라며, 성령님을 어려서 만나고, 삶을 드리는 은혜를 주시길

2015 년 8 월 7 일
 정지용/은영, 온유, 주언 올림



~ Episode ~



토기 Jar of Clay

깜뽕츠낭은 토기가 많은 곳이고, 그것이 그 이름 **깜뽕 + 츠낭 = 항구 + 도자기** 이기도합니다. 도자기를 굽는 집에 잠시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캄보디아 사람이셨다면 이곳에서 '나는 토기장이다'라고 하셨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을거야'



엄마

캄보디아도 어머니날을 지킵니다. 보통 부모님께 식사를 하거나 용돈을 드립니다. 지난 5 월 10 일 주일, 친교후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은영 선교사도 여러통의 편지를 그들에게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된거야'



'너무 창의적이어서 쓸 수 없는' too creative to use

브로셔 제작에서 가장 창의적인 것을 가져와보라하니 한 자매가 손에 쥘 구겨진(망친) 것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가가 그리다 망쳐 쓰레이통에 버린 구겨진 종이가 건물이 되었다 합니다.)



아빠은행 Bank of Daddy

온유 주언이에게 매주 4 불씩 용돈을 줍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나, 소액으로 경제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중 2 불은 예배때 헌금을 내야합니다. 십오조 ^{5/10}인 셈입니다. 나머지 2 불은 아빠은행(Bank of Daddy; BOD)에 저축을 하고, 때때로 과자를 사먹거나 볼펜같은 것을 삽니다. 어느때는 엄마 아빠에게 커피를 삽니다. 그 맛있는 커피에 엄마 아빠는 아이스크림 가장 큰 것을 사줍니다.